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선출

이란 전문가회의가 사망한 아이톨라 세 에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회의는 이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임시 회의에서 존경하는 전문가회의 대표들의 결정적인 투표를 바탕으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신성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제3대 지도자로 선출 및 소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회의는 “긴박한 전쟁 상황과 적들의 직접적인 위협에도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고 포괄적인” 심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TV는 모즈타바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선출됐다는 성명을 낭독하며 국민들에게 그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테헤란 도심에서 시민들이 새 최고지도자 선출을 축하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했다. 이후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88인 전문가회의가 소집돼 후계 구도를 논의해왔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모즈타바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9일 새벽 이란 테헤란 도심의 스크린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사진이 띄워진 모습. 연합뉴스

최고지도자 선출 전문가회의 “결정 주저하지 않아” 이란 최고지도자 인선, 美에 항전 의지로 일단 해석

는 보도는 지난 3일부터 나왔으나,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에 하메네이 후계자 최종 결정과 발표를 보안 우려로 미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불가’ 메시지를 냈던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이란 최고지도자 승계가 8일(현지시간) 발표되면서 일주일 넘게 계속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의 후계 구도

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Khamenei's son is unacceptable to me)”고 강한 어조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인터넷매체 약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며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이란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

불가’를 선언한 인물들 차기 지도자로 선택한 것은 결국 이번 전쟁에서 미국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국제사회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모즈타바 인선 관련 메시지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 대해 ‘베네수엘라 모델’을 자주 거론하며 이란 권력 체제 내부 출신의 온건파 차기 지도자를 통한 친미정책으로의 전환 유도를 기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메시지를 냈지, 아니면 모즈타바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 기류를 보일지가 이번 전쟁의 향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결국 배럴당 100달러 돌파 2022년 7월 후 처음...WTI·브렌트유 한때 111달러 넘겨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걸프 지역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7시 26분 기준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한때 111.24달러까지 올랐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같은 시각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가격 역시 한때 배럴당 111.04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세계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저장시설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산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원유 물류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블룸버그는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관련 유조선

선들과 중국 소유로 알려진 벨크선 두 척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컨설팅회사 크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통행량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일주일 만에 90% 줄었다.

선박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일주일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총 9건의 선박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7명에 이른다.

호르무즈를 통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은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이라크 주요 남부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인 하루 130만 배럴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의 원유 수출량도 급감했다. 지난달 333만 배럴 수준이던 하루 수출량도 이날 80만 배럴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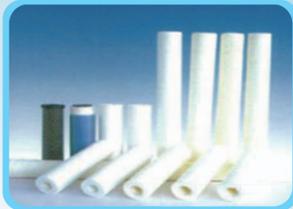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불가능해지면 유조선 두 척만 선적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현지시간으로 오후 8시께에는 수출이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